


용기 있는 우리 아빠

김민지

대구 상인초등학교 3학년 2반

어 느날 퇴근을 하는 아버지의 어깨가 늘어져 있었다.
 '힘이 많이 드신가 보네.'
 저녁 식탁 앞에 앉은 우리는 아버지의 눈치만 보게 되었다.
 "아, 입맛이 없네."
 아버지는 조금만 드시고 말았다. 그러다가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기시더니 크고 힘센 목소리로 말했다.
 "애들아, 오늘부터 아바가 담배를 끊기로 했다. 알겠지?"
 "정말로요?"
 오빠와 나는 동시에 똑같이 소리쳤다.
 "그래, 만약 아바가 담배를 피우는 날에는 너희들에게 노트북을 하나씩 사줄게."
 우리는 '와' 하며 좋아 어쩔 줄 몰랐다. 그때 옆에 있던 어머니가 아버지의 말은 무시하는 듯 투덜거리셨다.
 "흥, 며칠이나 갈려고. 애들한테 지키지 못할 약속은 왜 하고 그래요. 한 두 번 속아가지."
 어머니의 말씀이 맞는 맞다. 그러나 우리는 기대를 하였다.
 '과연 우리 아바가 담배를 끊을 수 있을까?'
 지난번 텔레비전에서 담배를 피워 폐암에 걸려 죽어가거나 손가락, 발가락이 썩어가는 무서운 장면을 본 적이 있다.
 만약 우리 아버지도 그러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이튿날 아침, 아버지는 머리가 맑고 입안이 깨끗하고 상쾌하다며 기분이 좋아 하셨다.
 "금연 껌 살까요?"
 "아니, 이번엔 내 의지를 시험해 볼거야." 아버지는 어느 때보다 단단히 각오를 하셨다.
 퇴근 후 집에 올 때 치과에서 이 청소도 하고 하루 종일 커피 대신 녹차를 마셨다고 우리에게 자랑을 하였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용기에 감동하여 기념으로 아버지의 네 번째 손가락에 금연 기념 반지를 꼭 끼워 주었다.
 "허허허~." 우리 가족은 어느새 더 행복해졌다.
 그러나 아버지의 고통은 곧 시작되고 말았다. 허끝의 감각이 둔해지면서 맛을 느낄 수 없는 지 켜히 어머니의 음식 솜씨만 탓하셨다. 밤에는 온 몸이 가려워 피가 나도록 긁었다. 밤에 자다가 일어나 등도 굼어드리고, 연고도 발라 드렸는데 너무 안타까웠다.
 '담배끊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꼭 무서운 병에 걸린 것만 같았다.
 담배를 끊은 지 15일째 아버지는 차츰차츰 예전의 몸으로 되어 간다. 입맛도 되찾고 가려움도 없어졌다.
 금연한 지 70일째의 우리 아버지, 이제는 자신 있게 남들에게 담배를 끊으라고 말할 수 있다며 행복해 하셨다.
 아버지께서 이제 고약한 냄새 대신 가족을 사랑하는 향긋한 냄새가 풍긴다. 

저 희 아با께서는 개인택시 기사입니다.
 아با께서는 속상한 일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 담배를 더 피우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 마께서 담배 냄새 때문에 속상하다고 하시면 아با께서는
 "나도 끊고 싶네. 끊을 수만 있다면." 하시며 멋쩍게 웃으시며 담배를 꺼내십니다.

지난번에도 아버지께서는 담배를 끊으시려고 시도를 하셨는데 번번히 실패하셨나 봅니다. 이번에도 큰 아버지와 함께 금연파스를 붙이시며 담배와 싸우셨습니다.

6개월이 지난 결과, 큰아버지께서는 담배를 끊으셨다고 사촌누나와 동생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담배에게 지셨습니다.

엄마께서 말씀하시길 아버지께서는 운전하시기 때문에 심한 교통체증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더 금연을 못하시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아빠 차를 같이타고 가다보면 신호가 막히면 아무말없이 담배를 꺼내 피우십니다. 엄마께서 담배냄새 때문에 머리 아프시다고 하셔도 계속 피우십니다.


“아빠! 저도 머리아파요.”

“성준아, 미안하구나.” 하시며 담배를 끄십니다. ‘담배’ 그렇게 금연이 힘든 것일까? 내 생각에는 초코렛처럼 달콤하고 맛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요즘은 TV에서 보면 금연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엄마께서는 금연 프로만 나오면 채널고정을 하십니다. 담배를 끊게 하시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빠! 심한 교통체증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더라도 건강 생각하셔서 담배 조금만 피우세요.”

한번 배우면 끊기가 힘든 담배. 엄마 말씀에 의하면 사춘기에 한두번 피우다가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엄마와 나는 약속합니다.

사춘기 시기를 운동을 오락으로 즐기며 현명하고 지혜롭게 보낼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해 봅니다. 

아빠의 스트레스

박성준

안양 동안초등학교 2학년 3반

우 리 집에는 아버지만 몰래 가는 비밀 장소가 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몰랐다.

그런데 그런데 글썽 그곳은 바로 아버지가 가족들 몰래 담배를 피우시는 장소였던 것이었다. 아버지는 담배를 끊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하지만 아버지는 약속을 어기셨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혼내시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약속을 안 지키랄까?

나는 어른들이 왜 담배를 피우는지 모르겠다. 담배는 한번 피우면 끊기 힘들다고 했다. 그리고 담배를 오래 피우면 폐암, 후두암 등 각종 질병에 걸린다고 했다.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가 담배를 계속 피운다는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예전에 TV에서 담배를 오래 피워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가운데에도 계속 담배를 피우시는 아저씨를 보았다. 또 야나운서, 라디오 MC, TV MC들이 금연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보았다. 난 정말 어른들을 이해할 수 없다. 우리한테는 TV 많이 보지 말라, 컴퓨터 게임 오래하지 말라, 인스턴트 식품 많이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담배는 이런 것 보다 100배, 1,000배 해로운 데 어른들은 왜 담배를 피우는지 이해 할 수 없다.

우리 가족은 토요일마다 가족회의를 한다. 가족회의 때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올해는 꼭 금연하기로 약속을 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약속이 어긋나지 않게 지켜지길 바란다.

아빠 꼭 금연하세요!

저는 건강하신 아버지와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아바도 항상 저를 믿는다고 하셨죠. 저도 항상 아버지를 믿어요.

아바의 금연을 위하여 파이팅!!!

아바 사랑해요!!!! 

아빠의 금연

이승호

용인 신월초등학교 2학년 6반